

# “이것만은 꼭” 광주시, 핵심 방역수칙 강조

## 확진자 다수 발생 주요 시설 8개 부류 나눠 전달 전자출입명부 의무·새벽 영업 금지·환기 실시 등

집합금지 업종 대부분을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사실상 첫날인 21일 광주시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 지역감염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로나 19 누적확진자가 486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내 감염은 나흘 연속 0명을 기록중이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31로 열흘째 1.0 이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개 중점관리시설 중 위

험도가 매우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개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한단계 완화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주요 시설을 8개 부류로 나눠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전달했다.

우선, 23명의 확진자가 나온 유흥주점과 플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에서는 새벽 1~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며,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과 마이크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31명의 확진자가 나온 실내집단운

동에서는 격렬한 GX류 등 가파른 호흡이 불가피할 시설을 중심으로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는 의무사항이다.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와 홍보관에서는 4㎡당 한 명 또는 50명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적용되고, 미등록·미신고 불법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12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종교시설의 경우 4㎡당 1인,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특히 소모임과 음식 제공·섭취 행위가 철저히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이밖에 목욕탕·사우나(확진자 10명)는 새벽 1~5시 영업이 금지되고, 기원(확진자 7명)은 4㎡당 1인,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사항이다. 특히 바둑

판 등 공용물품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실내 흡연시설도 폐쇄된다.

부페(확진자 5명)는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고, 공용접기 등을 사용할 경우 비닐장갑을 사용하도록 했고,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학원시설에서는 50명 이상 집합금지와 시설 소독, 수업 전후 1일 1회 이상 환기 실시가 핵심 방역수칙으로 전달됐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손해 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바르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재본부



**전남도, 제5회 '미래전남 혁신리더' 수여** 전라남도는 21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문화와 예술, 일자리 분야에서 도전하고 노력한 혁신 리더 5명을 발굴해 표창했다. 혁신리더로는 ▲하수미 극동방송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허명수 ㈜엘리스 대표 ▲박영목 ㈜피터더블유코리아 대표이사 ▲송병화 미래농촌연구소장 ▲이복행 북내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농어촌공사 '동반성장물' 도입...중소기업 판로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구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물'을 도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 직

원 전용 온라인 동반성장물'을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물에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굴 모집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생활용품 등 약 400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한다.

동반성장물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도입기관별 맞춤형 카테고리별 구

성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사 직원들은 개별구매 또는 단체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제품'과 지역 특산물 등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공사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기자

## 광주서 내년 9월 '전기차 급속충전' 국제행사 개최 KERI, 靑대표기관으로 선정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에서 내년 9월 전기차 급속충전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린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21일 “국제전기차충전기술협의체인 '차린(CharIN)'과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기차 급속충전 시 발생하는 오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시험 행사를 내년 9월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차린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시험인증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국제 민간기술협의체다. 현재 포드·현대기아·BMW·다임러벤츠·폭스바겐·GM·혼다 등 전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충전기 관련 업체들이 차린의 핵심 멤버로 참여할 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KERI와 차린은 국내·외 전기차 대기업과 충전기 제조사를 한자리에 모아 전기차 급속충전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는 '테스티벌(Test+Festival)'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

차린은 올해부터 대륙별(유럽, 북미, 아시아) 국제테스티벌을 연간 1회씩 개최하기 위해 독일의 코펜스,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를 각각 대륙별 대표 기관으로 선정했고, 아시아 대표로는 KERI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동구, 2020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

광주 동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에서 일반건강도시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8년 '치매예방관리 공동체 분위기 조성' 최우수상, 2019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 환경조성 프로젝트'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구는 올해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한 정책수립을 목표로 △부서간 협력을 통한 동구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수립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 △다분야 협력을 위한 건강도시 전략협의체 구성 △'건강도시 활동단' 운영을 통한 지역 건강위험요인 파악 등 건강도시 시스템 구축 부분 및 주민 주도적 참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서구, 집합금지 행정조치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급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장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남구, 내년 138억원 투입 '동네 생활인프라' 구축

광주 남구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38억 원 등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 방림동과 사직동 등 관내 곳곳에 대대적인 생활SOC 구축에 나선다.

남구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방림 생활문화센터와 사직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SOC 단일화 사업 분야에서도 주월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 월산동 작은 도서관, 사직동 공영 주차장, 진월 운동장 조성사업 4건이 선정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다”고 덧붙였다.

## 북구, 제13회 구민상 수상자 선정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에 기여한 주민을 '제13회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진용출(60세, 남) 팜파스(주) 대표이사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자동차 애프터 마켓 협의회를 창립하고 기술제휴,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지역사회봉사 부문 김현자(56세, 여) 이은혜어센스 대표는 37년 동안 미용업에 종사하며 애육원, 요양원 등 이웃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을 펼치실려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효행 부문 여규임(62세, 여)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어려운 형편에도 두 아들을 훌륭 양육하고 치매가 있는 시어머님을 43년 동안 봉양하는 등 자식으로서 진정한 효를 실천했다.

장한 장애인 부문의 김정영(67세, 여)씨는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부녀회원, 여성 민방위대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하며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 광산구, 추석 전후로 환경오염 특별 감시 나선다

광주 광산구가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홍보에 나섰다.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 활동은, 추석 연휴기간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비정상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추석 전인 21~29일, 광산구는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자율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5일간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행각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358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전옥수 (620218-1624110)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서방로 63번길 78-3(우산동)

위 망 전옥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9월 22일

공 고 인 : 전태수  
주 소 : 광주 북구 서방로 63번길 78-3(우산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9월 17일  
공 고 기 간 : 2020. 9. 22 ~ 2020. 11. 22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240,833원)	1.7배 (125,531원)	2.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의료원 1577-0000